

治 政 篇

明道先生曰、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 於人 必有所濟。

⇒ 명도선생이 말하기를, 처음으로 벼슬 하는 선비가 진실로 물건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에게 반드시 이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 明道先生が言うのに初めて官吏になる士が真実で品物を愛する心があったら他人に必ずよい事があるでしょう。

唐太宗御製曰、上有靡之 中有乘之 下有附之。幣帛依之 倉廩食之 爾俸爾祿 民膏民脂。下民 易虐 上蒼 難欺。

⇒ 당태종이 지은 글에 이르기를, 위에는 일을 지시하는 임금의 있고, 중간에는 이 지시에 따라 다스리는 관리가 있고, 아래에는 이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백성이 있다. 모든 관리들은 보수로 받은 비단으로 옷을 해 입고 창고에 쌓인 곡식으로 밥을 먹으니, 너희들이 받는 보수는 모두 백성들에게서 짜낸 기름이다. 관리들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학대하기는 쉬워도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푸른 하늘을 속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 唐太宗が作った文に伝わるのに上には仕事を指示する王があつて、中間にはこの指示に従つて治める官吏がいて、下にはこの指示に従つてばかりする民がいる。すべての役人たちは補修で受けた絹で服をして入庫倉庫に積もった穀食でご飯を食べたら、君たちのいただく補修は皆民たちから絞り出した油だ。役人たちは下にいる民たちを虐待することは易しくても上で下を見下ろす青い空を欺くことは難しいだろう。

童蒙訓曰、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清曰慎曰勤。知此三者 知所以持身矣。

⇒ 《동몽훈》에 말하기를, 벼슬을 하는 방법은 단지 세 가지 밖에 없으니 그것은 깨끗하고 근신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처신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童蒙訓》に伝わるのに官職をする方法はただ三種類しかないからそれはきれいで謹身して手まめ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この三種類が分かれば処身する方法が分かる。

當關者 必以暴怒爲戒 事有不可 當詳處之 必無不中 若先暴怒 只能自害。 豈能害人。

⇒ 관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한 화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일에 불가한 일(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 먼저 화부터 낸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다. 그러니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겠는가?

⇒ 官職にある人は必ずひどく怒らないように気を付けること。仕事に不可能な事(正しくない事)があつたら当然に優しく処理すれば必ず合わない事がないだろう。もし先に怒るとただ自分を有害にさせるだけだ。だからどうして他人に害を与えることが出来るか?

事君 如事親、事長官 如事兄、與同僚 如家人、待羣吏 如努僕、愛百姓 如妻子、處官事 如家事然後 能盡吾之心。

如有毫末不至 皆吾心 有所未盡也。

⇒임금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하고 윗사람 섬기기를 형 섬기듯 하며, 친구 대하기를 집안식구 대하듯 하고 아전 대접하기를 자기 집 노복 대접하듯 하고, 백성 사랑하기를 처자 사랑하듯 하고 나라 일 처리하는 것을 집안 일 처리하는 것처럼 한 후에 능히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모두가 내 마음의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王を仕えるのを親仕えるようにして、上司仕えるのを兄さん仕えるようにし、友達を接するのを家族を接するようにし、官吏をもてなすのを自分の家のお手伝いをもてなすようにし、民を愛するのを妻子を愛するようにし、国のことを処理することを家の事を処理することのようにした後に十分に最善をつくしたと言えるでしょう。もし少しでも出来なかった点があれば全てが私の心が最善をつく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だ。

或問、簿 佐令者也 簿所欲爲 令或不從 奈何。

伊川先生曰、當以誠意動之。

今令與簿不和 便是爭私意。

令 是邑之長 若能以事父兄之道 事之 過則歸己 善則唯恐不歸於令 積此誠意 豈有不動得人。

⇒어떤 사람이 정이천 선생에게 묻기를, “부(簿)는 영(令)을 돕는 사람인데 부가 하고자 하는 바를 영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였다. 정이천 선생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성의로써 그를 감동시켜야지요. 지금 영과 부의 불화는 곧 사사로운 마음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영은 고을의 장이니 만약 아버지와 형을 섬기는 도리로 그를 섬겨 허물은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착한 일이 단지 영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염려해서 이와 같은 성의를 쌓으면 어찌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말입니까?” 하였다.

⇒ある人が鄭伊川先生に聞くのに“簿は令を助ける人なのに簿がしようとすることを令が従わなければどうなさいますか?”とした。鄭伊川先生が答えるのに“当然誠意で彼を感動させない。今の令と簿の不和はすなわち私的な心で争うたのです。令は村の長なのでもしお父さんと兄さんを仕える道で彼を仕えて咎は自分のせいにして善良な事がただ令に帰らないことを気づかってこのような誠意を積みばどうして人を感動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でしょうか?”とした。

劉安禮 問臨民 明道先生曰、使民 各得輸其情。問御吏 曰正己以格物。

⇒유안례가 백성을 다루는 도리를 묻자 명도선생이 말하기를, “백성으로 하여금 그 뜻을 펴게 하시오.” 아전을 거느리는 방법을 묻자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오”라고 했다.

⇒劉安禮が民を扱う道理を問うと明道先生が言うのに“民にとってその意味を広げるようにしなさい。”官吏を従える方法を問うと言うのに“自分自身を正しくすることで事物の理を悟るようにしなさい。”と言った。

抱朴子曰、迎斧鉞而正諫 據鼎鑊而盡言 此謂忠臣也。

⇒ 포박자가 말하기를, 도끼에 맞는 한이 있어도 바르게 간하고, 가마솥에 넣어서 죽이려 해도 옳은 말을 다하면 이를 충신이라 한다.

⇒抱朴子が言うのに斧に中っても正しく言うし、釜に入れられても殺そうとしても正しい言葉を終えればこれを忠臣と言う。